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SUMI JO**

CREDIA MUSIC & ARTISTS

Hermès,
cavalier jewellery

CRE

**조수미 &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with Sumi Jo**

2023년 7월 6일 (목)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7:30PM Thursday, 6 July, 2023

Lotte Concert Hall

소프라노, 조수미

Sumi Jo, Soprano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클렌겔 1859-1933 독일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 Op. 57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프랑세 1912-1997 프랑스	아침의 노래 I. 안단테보다 빠르게 - 빠르고 리드미컬하게 - 부드럽게 조금 빠르게 II. 생기있고 빠르게 III. 느리게 IV. 빠르고 성급하게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빌라-로부스 1887-1959 브라질	브라질 풍의 바흐 제 5번 중 '아리아 (칸틸레나)'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들리브 1836-1891 프랑스	카디스의 처녀들 (편곡: 브루노 들르프레르)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인 터 미 션		
엘링턴 1899-1974 미국	카라반 (편곡: 빌헬름 카이저-린데만)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타이즐 1900-1984 미국		
시어링 1919-2011 영국	버드랜드의 자장가 (편곡: 빌헬름 카이저-린데만)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모리꼬네 1928-2020 이탈리아	영화 시네마 천국 OST '사랑의 테마' (편곡: 김애라)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거슈윈 1898-1937 미국	서머타임 (편곡: 브루노 들르프레르)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피아졸라 1921-1992 아르헨티나	레비라도 (편곡: 다비트 리니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카이저-린데만 1940-2010 독일	12인의 보사노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알비노니 1671-1751 이탈리아	아다지오 사단조 (편곡: 김애라)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로이드 웨버 1948- 영국	러브 네버 다이즈 (편곡: 김애라)	조수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피아졸라 1921-1992 아르헨티나	현실의 3분 (편곡: 다비트 리니커) 푸가와 신비 (편곡: 호세 카를리)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

J12

IT'S ALL ABOUT SECONDS

J. Klengel	1859-1933 Germany	Hymnus for 12 Cellos, Op. 57	The 12 Cellists of the BPO
J. Francaix	1912-1997 France	Aubade I. Andantino - Allegro ritmico - Allegretto amabile II. Vivacissimo III. Andante IV. Presto	The 12 Cellists of the BPO
H. Villa-Lobos	1887-1959 Brazil	Aria (Cantilena) from Bachianas Brasileiras No. 5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L. Delibes	1836-1891 France	Les filles de Cadix (arr. Bruno Delepelaire)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I N T E R M I S S I O N			
D. Ellington	1899-1974 U.S.A	Caravan (arr. Wilh. Kaiser-Lindemann)	The 12 Cellists of the BPO
J. Tiziol	1900-1984 U.S.A		
G. Shearing	1919-2011 England	Lullaby of Birdland (arr. Wilh. Kaiser-Lindemann)	The 12 Cellists of the BPO
E. Morricone	1928-2020 Italy	'Love Theme' from Cinema Paradiso (arr. Aera Kim)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G. Gershwin	1898-1937 U.S.A	Summertime (arr. Bruno Delepelaire)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A. Piazzolla	1921-1992 Argentina	Revirado (arr. David Riniker)	The 12 Cellists of the BPO
W. K-Lindemann	1940-2010 Germany	The 12 in Bossa Nova	The 12 Cellists of the BPO
T. Albinoni	1671-1751 Italy	Adagio in g minor (arr. Aera Kim)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A. L. Webber	1948- England	Love Never Dies (arr. Aera Kim)	Sumi Jo The 12 Cellists of the BPO
A. Piazzolla	1921-1992 Argentina	Tres Minutos Con La Realidad (arr. David Riniker) Fuga y Misterio (arr. José Carli)	The 12 Cellists of the BPO

소프라노 조수미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 데뷔 40주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그녀의 예술적 도전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새삼 놀랍다. 돌이켜 보면 이미 경력 초반부터 꾸준히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구했고, 시대악기로 모차르트 오페라를 녹음했으며, 현대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Igor Krutoy)와 앨범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 바로크 음악을 향한 꾸준한 관심은 잉글리시 콘서트(English Concert (2019))와 이 무지치(I Musici (2021))와의 연주로 이어져서 옛 음악에 대한 친화력과 양식에 어울리는 좋은 취향을 입증했다. 21세기 이후 꾸준히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 음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는데, 오늘 연주회에는 그 동안의 모든 여정을 아우른다는 느낌이다.

오늘 연주회의 또 다른 주인공인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Die 12 Cellisten der Berliner Philharmoniker)는 가장 탁월하면서도 '특이한' 실내악 앙상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름 그대로 베를린 필하모닉의 첼로 단원들이 모인 단체로, 전 세계 애호가들에게 '첼로 앙상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각인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두 명의 첼리스트들은 평소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멋진 연주를 들려주지만, 스케줄이 비면 갑자기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세계를 돌아다닌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특별히 쓴 작품을 중심으로 바흐에서 비틀즈와 탱고까지 모든 음악을 다루며, 언제나 눈부신 비르투오시티와 탄력적인 해석을 하나로 엮은 연주를 들려준다.

율리우스 클렌겔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 Op. 57

Julius Klengel

Hymnus for 12 Cellos, Op. 57

율리우스 클렌겔(Julius Klengel, 1859-1933)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독일 첼리스트로, 반세기 동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첼로 수석이자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 교육자, 작곡가로 활동했다. 그가 쓴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Hymnus for 12 Cellos, Op. 57)'는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의 정신적 뿌리와도 같은 작품이다. 클렌겔은 열한 명의 제자와 더불어 친구이자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었던 아르투르 니키슈(Arthur Nikisch)의 6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 결국 1922년 그의 장례식에서 초연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잊혔지만 197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첼로 단원들이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연주하면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장 프랑세

아침의 노래

Jean Francaix

Aubade

장 프랑세(Jean Francaix, 1912-1997)는 20세기 중후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신고전주의를 바탕으로 말년까지 다양한 작품을 썼다. 그의 작품은 다채로운 음악 형식을 취하면서도 언제나

가볍고 위트가 넘치는 표현을 잃지 않는다. 1975년에 초연된 ‘아침의 노래(Aubade)’는 상설 단체가 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들이 새로운 레퍼토리로 위촉한 작품이다. 작곡가는 조르주 상드(George Sand)의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썼는데, 아르 데코(art déco)풍의 세련된 노스텔지어로 시작해서 변화무쌍한 약상이 이어지다 - 작곡가의 설명에 의하면 - 자신의 고향인 르망(Le Mans)의 명물인 자동차 경주만큼이나 떠들썩하고 화려한 피날레로 마무리된다.

에이토르 빌라-로부스
브라질 풍의 바흐 제 5번 중
‘아리아 (칸틸레나)’

Heitor Villa-Lobos
Aria (Cantilena) from
Bachianas Brasileiras No. 5

브라질 출신의 에이토르 빌라-로부스(Heitor Villa-Lobos, 1887-1959)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속음악적 요소에 20세기 유럽 음악의 새로운 전통을 하나로 접목시켜 브라질 음악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는 열두 곡의 교향곡을 비롯해서 협주곡, 실내악곡, 성악곡 등 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작은 역시 <브라질 풍의 바흐 Bachianas Brasileiras>인데, 특히 5번 중 아리아(칸틸레나)는 감성적이고 유려한 선율미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이다. 다양한 편곡으로도 연주되지만 역시 원곡인 소프라노 독창과 여덟 대의 첼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느낌이다.

레오 들리브
카디스의 처녀들 (편곡: 브루노 들르펠레르)

Léo Delibes
Les filles de Cadix (arr. Bruno Delepeleire)

프랑스 작곡가 레오 들리브(Léo Delibes, 1836-1891)의 ‘카디스의 처녀들(Les filles de Cadix)’은 힘이 넘치면서도 가볍고 경쾌한 노래로, 콜로라투라 기교를 갖춘 소프라노 가수들의 애창곡이다. 스페인 풍의 이국적인 선율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우아한 멜리시마와 풍부한 화성이 인상적인 첫 부분을 지나 주인공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화려한 트릴과 아르페지오가 빛나는 보칼리제로 마무리된다. 자신감이 넘치고 정열적인 카디스의 아가씨들이 화창한 일요일 저녁 캐스터네즈 반주에 맞춰 볼레로를 추며 즐기는 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돈 많은 기사가 구애하지만 아가씨들은 보기 좋게 걸어찬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단원인 브루노 들르펠레르가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된다.

듀크 엘링턴, 후안 타이졸

카라반 (편곡: 빌헬름 카이저-린데만)

Duke Ellington, Juan Tizol

Caravan (arr. Wilh. Kaiser-Lindemann)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1899-1974)은 ‘빅 밴드’ 시대를 상징하는 재즈의 거장으로, 작곡가로서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1,0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그중 상당수가 클래식 반열에 올랐다. 듀크 엘링턴의 오케스트라에는 위대한 연주자들이 다수 포진했는데,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트럼본 연주자 후안 타이졸(Juan Tizol, 1900-1984)도 그중 한 명이었다. 1936년에 엘링턴과 타이졸이 함께 쓴 ‘카라반(Caravan)’은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영화와 드라마에도 많이 쓰였다. 가사는 어빙 밀스(Irving Mills)가 썼지만 지금은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프로-라틴 계통의 새로운 리듬을 재즈에 녹여낸 매력적인 작품이다.

조지 시어링

버드랜드의 자장가

(편곡: 빌헬름 카이저-린데만)

George Shearing

Lullaby of Birdland

(arr. Wilh. Kaiser-Lindemann)

조지 시어링(George Shearing, 1919-2011)은 영국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300곡이 넘는 노래를 쓴 작곡가로,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독주자와 그룹 리더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의 노래 여러 곡이 재즈 스탠더드로 인기를 누렸는데, 1952년작인 ‘버드랜드의 자장가(Lullaby of Birdland)’는 ‘컨셉션(Conception)’과 더불어 대표작으로 꼽힌다. ‘버드랜드’는 뉴욕에 있는 재즈 클럽 이름으로, 가사는 조지 데이빗 웨이스(George David Weiss)가 썼다. 엘라 핏제럴드(Ella Fitzgerald), 사라 본(Sarah Vaughan) 등 수많은 재즈 가수와 연주자들이 녹음을 남겼다.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 시네마 천국 OST

‘사랑의 테마’ (편곡: 김애라)

Ennio Morricone

‘Love Theme’ from

Cinema Paradiso (arr. Area Kim)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 1928-2020)는 역사상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400편이 넘는 영화를 위한 음악을 썼는데, 특히 주세페 토르나토레(Giuseppe Tornatore) 감독과는 1988년작 <시네마 천국 Cinema Paradiso>을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모든 영화음악을 담당하며 가깝게 일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소년과 영사 기사의 우정을 다룬 이 영화에서 모리코네의

음악은 영상과 더없이 잘 어울리며, 특히 ‘사랑의 테마’는 알레시오 데 센시(Alessio De Sensi)의 가사를 붙인 노래로도 널리 큰 사랑을 받았다.

조지 거슈윈

서머타임 (편곡: 브루노 들르프레르)

George Gershwin

Summertime (arr. Bruno Delepelaire)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 1898-1937)은 1920-30년대를 휩쓴 이른바 재즈 시대의 상징이자 클래식 음악과 미국 대중음악의 결합을 시도한 선구자였다. 1935년에 초연된 오페라 <포기와 베스 Porgy and Bess>는 그 상징과도 같은 작품으로, 전곡도 오페라 극장의 상설 레퍼토리가 되었지만 여러 개별 곡이 지금까지 인기를 끌며 클래식, 재즈, 락 등 다양한 형태로 연주된다. ‘서머타임(Summertime)’은 오페라에서 클라라가 부르는 자장가로, 그 후로도 여러 번 나오며 초연 이후 즉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단원인 브루노 들르프레르가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된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레비라도 (편곡: 다비트 리니커)

Astor Piazzolla

Revirado (arr. David Riniker)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1921-1992)는 ‘탱고 누에보(tango nuevo)’를 통해 전통적인 탱고 음악을 진지한 예술로 끌어올렸다. 마치 바로크 시대에 본래 서민들의 춤곡이었던 폴리아나 샤콘이 코렐리, 퍼셀, 바흐 등 위대한 대가들에 의해 우아하고 심오한 작품이 되었듯이, 탱고는 피아졸라의 손에서 유럽 고전음악과 재즈 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여 육체를 위한 춤곡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단 이후 진지하고 가벼운 레퍼토리 사이에서 고민했던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에게 피아졸라의 탱고는 이상적인 해결책이었다. 1963년 작인 ‘레비라도(Revirado)’는 대위법을 강조한 탱고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멤버인 다비트 리니커(David Riniker)가 편곡했다.

빌헬름 카이저-린데만

12인의 보사노바

Wilhelm Kaiser-Lindemann

The 12 in Bossa Nova

독일 작곡가 빌헬름 카이저-린데만(Wilhelm Kaiser-Lindemann, 1940-2010)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위해서 여러 곡의 신작과 편곡 작품을 썼다. ‘12인의 보사노바(The 12 in Bossa-Nova)’ 역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또 다른 제목인 ‘브라질 변주곡(Variações brasileiras)’이 암시하듯 라틴 아메리카의 정서를 담았다. 첼리스트 열두 명 모두에게 화려한 비르투오시티를 요구하는 강렬한 작품이다.

토마소 알비노니 (레모 지아조토)

아다지오 사단조 (편곡: 김애라)

Tomaso Albinoni (Remo Giazotto)

Adagio in g minor (arr. Area Kim)

클래식 음악에도 ‘위작’ 논쟁이 벌어지는 작품이 종종 있다. 흔히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고 알려진 작품은 사실 바로크 작곡가 알비노니가 아니라 20세기 이탈리아 음악학자인 레모 지아조토(Remo Giazotto)가 알비노니의 단편을 바탕으로, 혹은 이름만 빌려 새로 쓴 작품이다. 오르간 콘티누오 위로 심각하고 구슬픈 주제가 현악 합주로 흐르는 이 감상적인 작품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영화와 광고, 대중음악에 쓰였는데, 가사를 붙여 노래로 연주하기도 한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

러브 네버 다이즈 (편곡: 김애라)

Andrew Lloyd Webber

Love Never Dies (arr. Area Kim)

‘러브 네버 다이즈(Love Never Dies)’는 2010년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발표한 동명 뮤지컬의 타이틀 곡이다. 이 뮤지컬은 줄거리 상으로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크리스틴과 에릭(유령)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데, 에릭이 크리스틴을 위해서 쓴 같은 제목의 노래는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현실의 3분

(편곡: 다비트 리니커)

Astor Piazzolla

Tres Minutos Con La Realidad

(David Riniker)

‘현실의 3분(Tres Minutos Con La Realidad)’은 제목 그대로 3분 남짓한 짧은 곡이지만, 피아졸라가 전통

적인 탱고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피아졸라는 1955년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현악 오케스트라(Orquesta de Cuerdas)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옥테트(Octeto Buenos Aires)를 만들었는데, 두 앙상블을 위해서 이 곡을 썼다. 히나스테라와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제목의 ‘현실’은 아마도 뉴욕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를 가리키는 듯하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푸가와 신비 (편곡: 호세 카를리)

Astor Piazzolla

Fuga y Misterio (arr. José Carli)

오늘 공연은 또 한 곡의 피아졸라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바로 ‘푸가와 신비(Fuga y Misterio)’로, 본래는 1968년에 쓴 탱고 오페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리아 María de Buenos Aires>에 나오는 곡이다. 이 무렵부터 피아졸라는 더욱 진지하게 클래식 음악과 탱고의 접목을 시도했는데, 바흐를 연상케 하는 엄격한 대위법(푸가)과 중간 부분의 애상적인 밀롱가 milonga(신비)가 멋진 조화를 이룬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호세 카를리(José Carli)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위해서 첼로 앙상블로 편곡했다.

CREEDIA

글 |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정트리오

CHUNG TRIO CONCERT

MYUNG-WHUN CHUNG

KYUNG-WHA CHUNG

JIAN WANG



2023.9.5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조수미

Sumi Jo
Soprano



소프라노 조수미는 나폴리 존타 국제 콩쿠르, 프랜시스 비오티 국제 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국제 콩쿠르, 베로나 국제 콩쿠르 등의 명성 있는 국제 콩쿠르를 우승하며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988년에는 조수미의 오페라 인생을 세계 정상급 무대로 이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는 큰 전환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의 만남이다.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카라얀의 극찬과 함께 오디션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카라얀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게오르그 솔티 경이 대신 지휘했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오스카’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잘츠부르크의 카라얀]이라는 비디오 녹음과 함께 조수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그녀는 앞만 보며 달리는 콜로라투라의 대가로 이태리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하우스와의 공연에서 주역으로 출연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조수미는 1993년 이탈리아에서 그 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수여하는 <황금기러기 상(La Siola d’Oro)>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로부터 ‘평화예술인(Artist for Peace)’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명예이자 큰 영광인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29회 북경 올림픽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독창회 무대를 가졌다.

국제오페라 무대 30주년을 맞은 2016년, 그녀가 부른 영화 <유스>의 주제가 ‘심플 송’이 그해 4월 이탈리아 도나텔로 어워드에서 주제가상 수상,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 동안 뉴욕, 모스크바 등 전 세계에서 ‘평창올림픽성공기원’ 공연에 참여, 2018년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공식주제가 ‘Here as ONE’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곧이어 러시아에서 개최한 세계최대규모의 ‘제1회 브라보 어워드’에서 ‘최고여성연주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는 오페라 업적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주는 친선훈장과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2021년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초빙되어 2022년부터 강단에 서며, 2024년에는 조수미의 이름을 딴 국제 성악콩쿠르가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음, 미국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꾸준히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는 영국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2019년에 노르웨이 퀸 소냐 콩쿠르의 심사를 맡은 바 있다.

음반으로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등과 함께 주옥같은 명반을 남겨 1993년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은 그 해 오페라 최고 부문에 선정되어 그래미 상(Grammy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2000년 발매된 뮤지컬 넘버로 구성된 크로스 오버 <Only Love>를 통해 밀리언 셀러의 판매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응

원가 <챔피언>은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조수미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2007년 계약을 체결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통해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사인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세계의 사랑 노래를 모은 <미싱 유(Missing you)>를 발매해 ‘파이버 타임즈 플래티넘’의 기록을 이뤘다. 2010년 3월 유니버설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앨범인 독일가곡 <Ich Liebe Dich> 앨범을 발매하였고 2011년에는 집시의 삶을 노래한 <Libera> 앨범을, 2012년 12월에는 러시아 유명 작곡가 Igor Krutoy의 작품을 녹음한 음반 <La Luce>를 발매하였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가요 앨범 <그.리.다>를 발매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고 있다. 2021년에는 데뷔 35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 무지치’와 레코딩한 새 바로크 앨범 <LUX 3570>을 발매했으며 이를 기념한 투어를 진행했다. 2022년 12월에는 팬 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담은 한국 노래 앨범 <사랑할 때>를 발매했다.

Praised for the remarkable agility, precision and warmth of her voice, and for her outstanding musicianship, Sumi Jo has established herself as one of her generation’s most sought-after sopranos. She has been consistently greeted with exceptional accolades, by public and press alike, for her performances in the most important opera houses and concert halls throughout the world.

As a world class coloratura soprano, she has actively extended her role in various opera productions in the world opera stages. New additions to her repertoire in recent years have been Delibes’ Lakeme, Meyerbeer’s Dinorah and Giulietta in I Capuleti ed i Montecchi, which she sang for the Minnesota Opera.

In her early years, Ms. Jo has been heard in the title role of Lucia di Lammermoor At New York’s Metropolitan Opera, Gilda in Rigoletto, Olympia in Les Contes d’Hoffmann, Oscar in Un Ballo in maschera. La Scala audiences have heard her in bel canto specialties such as Le Comte Ory, Fra Diavol. At the Teatro Colon in Buenos Aires she has appeared as Gilda, Zerbinetta and Queen of the Night, the latter role of which was the vehicle of her Vienna State Opera debut. Other operas in her extensive repertoire include Donizetti’s La Fille du Regiment and Don Pasquale, Rossini’s Il Turco in Italia and Elisabetta, regina d’Inghilterra, Mozart’s Abduction from the Seraglio and Strauss’ Ariadne auf Naxos and Der Rosenkavalier.

Sumi Jo is also in constant demand as a concert artist in both for special events such as the World Cup, an Asian tour of gala concerts with Andrea Bocelli, and a program of Viennese favorites with celebrated Cincinnati Pops, 2011 Winter Asian Games Opening Stage in Astana and Almaty (Kazakhstan),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Opening Shows. A gala concert with Jonas Kaufmann, Renee Fleming and Dmitri Hvorostovsky as part of the Olympic games in Beijing, a Christmas concert with Jose Carreras in Barcelona as well as recitals in major concert halls in Canada, United States, Hong Kong, Beijing, Singapore, Paris, Brussels, Barcelona, recital tours in Korea, Tokyo/Japan and Australia and duo concerts with Dmitri Hvorostovsky in Asia, United States and Canada. She has also enlightened public with her crossover stages

in many places ever since her first Broadway Songs concert in Carnegie Hall accompanied by The Orchestra of St. Luke's in 2001. She sold more than 1,200,000 copies of her first crossover album <Only Love> worldwide, adding to her list of best-selling recordings.

Her appearance as a world-renowned opera singer 'Sumi Jo' in Italian movie Director, Paolo Sorrentino's movie <YOUTH> made a sensation in cinema, nominating 'Simple Song #3' sung with her own voice also appearing in <YOUTH> in person, as a best Original Song category at Golden Globe Awards, Critics' Choice Awards as well as 2016 Academy Awards. <Simple Song #3> composed by Dvid Lang, won ,Best Original Song at the David di Donatello in Italy Ms. Jo currently has over 50 recordings to her credit, which include ten solo albums for Universal Music and Warner Music. Among them are a Grammy-winning Die Frau ohne Schatten with Sir Georg Solti for London/Decca and Un Ballo in Maschera for Deutsche Grammophon under Herbert von Karajan. She has also recorded The Magic Flute and an album of arias under the baton of Maestro Solti.

Ms. Jo has won many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first prize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in Seoul, Naples, Enna, Barcelona and Pretoria. In August 1986 she was unanimously awarded first prize in the Carlo Alberto Cappelli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Verona,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contests, open only to first prize-winners of other major competitions. She was elected as "Artist for Peace" of UNESCO in 2003 and received "The Puccini Award". Ms. Jo makes her home in Rome.

In 2019, Ms. Jo has been awarded an order of merit and knighthood by the Italian government for her contributions to mus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taly. In October 2021, she has been appointed as a professor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Ms. Jo have been teaching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22. Ms. Jo regularly gives masterclass at Mozarteum of Austria and Harvard University and elsewhere.

In 2019, Ms. Jo was honored with an Order of Merit and knighthood by the Italian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her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romoting mus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Italy. Furthermore, in October 2021, s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where she has been teaching since the first semester of 2022. In addition to her teaching duties, Additionally, Ms. Jo frequently conducts masterclasses at renowned institutions such as the Mozarteum in Austria, Harvard University, and various other locations.

Recently, she was appointed as a jury member for the 2023 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previously served as a jury member for the BBC Cardiff Singer of the World in 2017 and the Queen Sonja Competition in Norway in 2019.

In 2023, Ms. Jo is released an album < Lux. 3570> with I Musici di Roma in December to celebrate the 35th anniversary of her European operatic debut. Ms. Jo and I Musici had a tour in Korea in December 2023.

In 2024, the 'Sumi Jo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named after Jo Sumi is scheduled to be held at Chateau de La Ferte-Imbault, a castle located near Paris, France.



© J. Armas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이하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오랫동안 세계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1972년,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과 함께 12개의 첼로를 위한 율리우스 클렌겔(Julius Klengel)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를 녹음하기 위해 모였던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그들의 탁월하고도 비르투오조적인 음색은 곧 전 세계의 청중들을 사로잡았으며, 이제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들은 전세계적으로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클래식, 재즈, 탱고, 아방가르드 등 어떤 곡을 연주하던 청중들은 이 12개의 첼로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색에 매료된다. 또한 그들의 진지함과 유머가 혼합된 특유의 매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중을 열광케 한다.

물론 모든 교향악단에는 첼로 파트가 존재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들과처럼 크고 저음의 현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독립적인 앙상블, 즉 오케스트라 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성공을 거듭한 사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악 애호가들은 베를린 필하모닉의 명성을 떠나서도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음악단체이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1972년부터 함께 연주했으며, 때로는 베를린에서, 때로는 다른 곳에서, 그리고 꽤 자주 먼 곳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 앙상블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의 첫 번째 공연은 베를린이 아닌 그들이 여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열렸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구성원은 수년간 변화해 왔다. 창단 멤버들은 은퇴했으며, 젊은 단원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지속성과 개선은 12 첼리스트의 역사에서 생산적인 동맹을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는 이들의 연주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현대음악가들이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를 위한 곡을 작곡했는데, 보리스 블라허, 세바스찬 커리어, 브레트 던, 탄둔, 페테르 외트보시, 장 프랑세, 소피아 구바이둘리나, 크리스찬 요스트, 빌헬름 카이저 린더만, 아르보 패르트, 볼프강 림, 카이야 사리아호, 프랭키스 알리사데, 페테리스 바스크스, 아이니스 크셰나키스, 우도 짐머만 등이 이들을 위한 곡을 만들었다.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는 2001년과 2005년, 2017년에 독일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에코 클래식 상을 받았다.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have long been a prominent institution in international musical life. It was in 1972 that a radio production of Julius Klengel's Hymnus for twelve cellos with Philharmonic members became the impetus for founding a solo ensemble of this formation. Its exceptional tonal and virtuosic qualities soon took worldwide concert audiences by storm, and now the 12 Cellists enjoy a remarkable international following. Whether they're playing the classics, jazz, tango or avant-garde, listeners are invariably fascinated by the wide range of unique and intoxicating timbres that these twelve cellos can produce, and their mixture of seriousness and humour, of depth and lightness, appeals to audiences of all ages.

They are unique. Naturally, every symphony orchestra has its cello section. But nowhere else in the world have the deeper, larger strings joined together to form an independent ensemble - an orchestra within an orchestra - meeting with success after success. That is why every music lover knows immediately where the "12 Cellists" come from, even if they cannot name their orchestra. They are an institution.

They have played together since 1972, appearing as an ensemble, occasionally in Berlin, often elsewhere, and quite often traveling great distances. Even their premiere concert, with its evening-long program, took place not in Berlin, but instead in Tokyo, the Japanese capital, a city with which they are still closely associated.

The group's personnel has changed over the years; founders have entered retirement, and younger colleagues have also moved on. Continuity and renewal have formed a productive alliance in the history of the 12 Cellists - as you can hear for yourselves.

Among the contemporary composers who have written works specially for the "12" are Boris Blacher, Sebastian Currier, Brett Dean, Tan Dun, Péter Eötvös, Jean Françaix, Sofia Gubaidulina, Christian Jost, Wilhelm Kaiser-Lindemann, Arvo Pärt, Wolfgang Rihm, Kaija Saariaho, Frangis Ali-Sade, Pēteris Vasks, Iannis Xenakis and Udo Zimmermann. They have accompanied the German president as ambassadors of Berlin and appeared on several occasions at the Japanese Imperial Palace. Their CDs regularly make the charts and in 2001, 2005 and 2017 were awarded the "Echo Klassik" prize.



Ludwig Quandt



Solène Kermarrec



Martin Menking



Bruno Delepelaire



David Riniker



Knut Weber



Rachel Helleur-Simcock



Martin Löhr



Nikolaus Römisch



Christophe Igelbrink



Olaf Maninger



Uladzimir Sinkevich

한일우정음악회 日韓友情音樂會

QUARTET
EXCELSIOR

제5회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 콩쿠르 최고상에 빛나는
일본 실내악의 자존심,
콰르텟 엑셀시오

PIANIST
LEE KYUNG MI

거장 마에스트로
드리트리예프가 극찬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경미

피아니스트 이경미

콰르텟 엑셀시오

2023.11.7 TUE 8 PM | 롯데콘서트홀

장한나

미샤 마이스키

WITH

디토 오케스트라

스승과 제자, 지휘봉과 첼로 활보 마주하다

HAN-NA CHANG & MISCHA MAISKY

WITH DITTO ORCHESTRA

2023.9.23 SAT | 9.24 SUN |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티켓

예매

CREEDIA MUSIC & ARTISTS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Club BALCONY 리켓링크 인터파크 티켓 예술의전당

9.23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Op. 67

9.24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b단조 Op. 104 |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Op. 95

© DE WITTEN

© MICHAEL BRONSTEIN / AP



D'niCheur

by seo seung yeon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선택.
특별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드레스 데니체르 by 서승연.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무대의상 · 맞춤 · 대여

www.denicheur.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4길 55 메종데니체르 / Tel.02)542-1319

펫숍의 인형 같은 강아지들이 오는 곳,
번식장을 아시나요?

여기 80여 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루시법 프로젝트와 함께
이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루시법 프로젝트
함께하기

루시법: 영국에서 2018년 발표된 법안으로 6개
월령 이하 강아지·고양이를 제3자(펫숍)가 판매
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 대량 생산과 매매
에 수반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루시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카라가 번식장에서 구조하여 더봄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인 모견과 자견들

크레디아 클래식클럽 2023

삶에 [취향]이 필요할 때

✈️ BON VOYAGE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여행과 닮았지만,
그 길에 행복과 응원을 주는 여행 메이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요일의 새로운 즐거움, 여행 메이트를 소개합니다!



09.06 | 홍진호 박현수

시네마 파라디소



10.04 | 대니구 원재연
심준호 박규민 신경식

화이트 나이트



11.08 | 존노

코지 판 투테



12.06 | 김태형 손정범

피아노 엑스트라바간자

한달에 한번 수요일 2시·8시 롯데콘서트홀 | 모든 좌석 38,000원



Design your *Life* !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FRIENDS

가입비: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CREDIA

SMART

가입비: 3만원
유효기간: 1년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 시
(공연별 최대 4매)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 배송(연 4회)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 시)

문화이벤트
лек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라칼라스 식사 10% 할인 (런치, 세트메뉴 제외) 02-521-33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8

 예전레코드 음반 10% 할인 (당일 공연 CD 제외) 02-597-9536 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조수미 & 베를린 필하모닉 12 첼리스트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회원에게 한정]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bal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